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11월 1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11:1-6

3시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앞으로 많은 세월을 두고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은 세상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힘을 다하여 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전달하신 내용이며 성전의 근본 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달할 전략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며 성전은 이것을 위하여 세워졌다는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뜰은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를 전달하여 세상을 살리고 회복된 증인들이 저주에서 사람을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이들의 뜰은 우리의 미래를 말합니다. 주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여 확실한 제자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교회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3가지 뜰의 내용을 금토일을 활용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더 깊이 심어야 한다는 것이 금토일 시대를 만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심각한 영적 문제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의 묵상 시대를 열어서 우리의 후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또한 묵상 시대입니다.
3뜰을 통한 3시대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구약 시대부터 성전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과 사상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은 선교 현장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바라는 것들의 실상

1)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2) 그리고 3절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니라. 즉 아무런 재료 없이 말씀으로 그냥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 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에녹은 죽음 없이 승천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첫째는 그가 계신 것과 둘 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4)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없고 아예 믿음이란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5) 이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저주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이라고 하고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고 사단의 머리가 이미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입니다.
6)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도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다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7) 이렇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바라고 기도하고 있던 것이 내 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 앞에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이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이 두 약속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고 그 믿음으로 살면 내가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눈 앞에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이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수 많은 선진들이 다 그랬다고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 이런 수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도 믿고 이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깊이 생각하고 정리를 해 볼 말씀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것 외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이 사실이면 그리스도 보혈 외에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10) 문제는 눈이 열리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나에게 어느 날 이 작업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시로 답을 얻었고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더 이상 슬픈 빛이 없었습니다. 슬픈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 속에서는 승리와 정복을 누리고 그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불안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의 특징입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안 될 것이란 생각은 절대로 들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이미 끝났다는 고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2)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방해하는 뱀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잡고 누리는 자에게 믿음의 축복이 오고 확신의 축복이 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정복했다는 눈이 열리고 이미 정리되었다는 답이 납니다.

13) 히11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능히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예배를 예사로 드리지 말고 기도에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을 주실 것입니다.

14) 어떤 사람은 한나처럼 10년 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날이 난데 없이 찾아 올 수도 있고,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 어느 날이 와서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집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느 날 답이 난 사람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15) 그리하여 주님이 가자 내가 가서 너희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해도 그러실 필요 없다 하고 여기서 말씀만 하면 된다고 시대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의 경우이든 눈이 열리는 그 날이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을 가진 자가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작품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